

국가AI컴퓨팅센터 무응찰...공모 성사 미지수

과기정통부, 오늘 연장공고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토대가 될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이 무응찰로 연장 공고 사태를 맞았다. 2월 사업설명회장이 불빈 데다, 100개 이상 기업이 정

부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공모 흥행이 점쳐졌지만 결국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기한인 지난달 30일 오후 5시까지 응찰한 사업자가 없었다. 공모 유찰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2일부터 공모요건 변경 없이 추가 신청을 받는다.

당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와 삼성SDS·LG CNS·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자, 네이버·NHN 등 클라우드 사업자 간 합종연횡으로 복수 컨소시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발됐다. 수익성 확보 불확실성과 손해배상 책임, 공공 지분 매수청구권

(바이백), 높은 공공 지분을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5월 9일·31일 1면 참조

업체에서는 2주 정도 추가 공모기간이면 기존에 사업을 준비해온 컨소시엄 외에 신규 사업자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모지침서상 방대한 제안 요청 내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준비를 마치기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글로벌 기업과 협력 내용을 포함해 컨소시엄 구성 역시 변수다.

특히 요건 변경 없는 공모 기한 연장만큼 사업 참여 유인도 낮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배포 후 석 달 정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결국 사업성이 낮고 컨

소시엄을 구성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공모 기간에 2개 이상 복수 사업자가 참여하면 재무 건전성, 컨소시엄 구성, 사업비 적절성, 센터 부지·인프라·전력, 운영방안 등 평가기준에 의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

1개 사업자만 참여하면 역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사업 능력이 있는지 판단, 적합성이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유찰이다. 이 경우 공모 지침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청 마감기한은 내부 논의 중”이라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관련기사 3면

낮은 수익성·과도한 책임...예견된 패싱

뉴스 증인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무응찰 이유

공공 지분율 51%...자율성 우려
고강도 관리·감독 대상 가능성 ↑
불합리한 손해배상 조항도 지적

정부 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꼽혔던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이 무응찰 사태를 맞은 것은 예견된 결과다.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고 광범위한 사업 제안 범위와 의무 등이 사실상 기업 참여를 막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율 51%를 공공참여 자 몫으로 정하면서 사업 자율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공공 지분율이 51% 이상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있고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등 공공기관 수준의 의무를 갖게 된다. 기업들은 사업 적자 등을 기록할 경우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다.

손해배상 조항도 문제로 거론됐다. 공모지침서상 'SPC 설립기한 내 회사가 설립되지 않거나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민간 출자지분과 잔존재산 처분권을 과기정통부에 위임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이나 승인결과 등에 따라 사업 존속이 어렵다면 이행보증금은 반납해야 하고 민간사업자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등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기업들은 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사업 중단에 대한 원인을 공공참여자가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민간사업자 책임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봤다. 공공 지분이 과반을 차지함에도 사업 중단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만 지운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지분 51%는 정부와 공공에서 AI컴퓨팅 인프라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이며, 손해배상 지침은 다른 공공사업 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SPC 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장공고를 낼 방침이지만 무응찰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SDS 컨소시엄 외 다른 컨소시엄이 구성되더라도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프로젝트 개요

사업 목적	AI 연구개발 환경 조성 및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육성
주요 사업	① 민간 합작투자 바탕 SPC 설립, 대출 등 자금 차입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②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및 산업·연구계 지원, 국산 AI반도체 시장 창출, 글로벌 기업 협력, R&D 성과 적용 등 추진
총 사업 규모	6년간 공공출자 2000억원, 자본금 총 4000억원 내외 대출·정책금융, 시중은행 대출 등 추가차입 필요
주요 내용	사업기간: 2025~2030년 사업부지: 신규 구축 또는 기존 데이터센터 활용 가능(비수도권) 구축 목표: 2030년까지 총 1EF(엑사플롭스) 이상 최종 선정대상 민간 참여자 수: 1개 기업 또는 1개 컨소시엄
주요 추진 내용	① SPC 지분율: 공공 51%, 민간 49% ② 비수도권에 구축, 국산 AI반도체 활용 ③ 대학·연구소,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저렴한 수준의 비용 부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계 관계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입찰 마감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입찰 참여 분위기였지만 막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컨소시엄 구성원 간 수익 배분 문제에서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조율되지 않으면 삼성SDS 컨소시엄 역시 연장공고가 나더라도 최종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PC 관련 서류 준비와 1000페이지 이상 달하는 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며 “SPC 수주 컨소시엄이 사전 GPU 구매사업에 우선권을 가져간다는 것도

수익성 등을 따져봤을 때 현재로서는 매력도가 떨어져 적극 나서는 컨소시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재공고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임원은 “새 정부가 곧 출범하고 장관 등이 새롭게 임명되면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업계가 우려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 등을 거쳐 재공고를 한다면 다시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김지선기자 truth@etnews.com

“AI 데이터 폐기 돈 된다” 韓·美·英기업 각축

데이터 쉐주기 관리 시장 급부상
AI 스토리지 시장 연 30%씩 성장
델·퓨어스토리지·넷애플 등이 장악

IBM “해킹 방지 저장장치 제공”
SK는 데이터 폐기 시장서 ‘승부’

데이터센터 열풍에 힘입어 데이터 생애 주기 관련 사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넘어 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관·파기해야 한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급성장하는 AI 스토리지 시장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은 데이터센터산업과 함께 가장 급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스토리지 서비스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 또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0일 테크업계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스토리지 시장도 급변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위주로 구성되던 데이터 저장 장치는 최근 인식 속도가 빠른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로만 구성된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바뀌는 추세다. AI 학습을 위해서는 이미지, 영상 등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와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올플래시스토리지 시장은 델(23.6%), 퓨어스토리지(21.1%), 넷애플(20.5%) 등 3개 회사가 시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IBM(10.9%), 휴렛팩커드(7.3%), 히타치(6.9%) 등이 뒤따르고 있다. 샘 워너 IBM 스토리지부문 부사장은 지난 27일 IBM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AI 스토리지 시장이 연 3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들은 앞다퉀 악성코드 방지 프로그램이 내장된 저장 장치를 내놓고 있다. 최근 해커들이 의료시설의 환자 개인정보나 기업 고객 정보가 담긴 스토리지를 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IBM 스토리지 부문을 총괄하는 박대성 상무는 “랜섬

웨어가 침투할 경우 이를 미리 감지해 차단하는 기능을 저장 장치에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가 생성된 지 1년6개월가량 지나면 스토리지에서 아카이빙 단계로 넘어간다. 장기 보존을 위해 SSD 대비 속도가 느리지만 단가가 저렴한 HDD나 테이프 등 별도 저장공간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다. 방송국 자료 화면, 규제에 묶여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문서 등이 대표적인 아카이빙 데이터다.

◆보안 우려에 데이터도 잘 파기해야 ITAD(인터넷 자산 처리서비스)업체도 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 열풍에 따른 수혜를 볼 분야로 꼽힌다. ITAD는 수명을 다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파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저장 장치 폐기 과정에서 장치 내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일부 부품은 재활용 절차를 밟는다.

데이터 파기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유출’ 우려다. ITAD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 클라이언트는 특히 고객 데이터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중국에도 단가가 낮은 ITAD 업체들이 있지만 데이터 유출 우려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했다.

S&P500지수에 포함된 미국 아이언마운틴, 영국 심스리사이클링솔루션 등이 ITAD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인수한 SK테스 등이 유망 기업으로 거론된다. SK테스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도’라고 불리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지난해 ITAD 시설을 준공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유럽 데이터센터의 중심지인 아일랜드에 새 시설을 열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SK, 울산 AI데이터센터에 전력 직공급한다

SK그룹이 울산에 건립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멀티유틸리티(SKMU)를 통해 직접 공급한다. 이로써 SK그룹은 울산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공 전력망이 아닌 자체 발전 자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현재 SK텔레콤을 주축으로 진행 중인 그룹의 데이터센터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6면

3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울산 AI 데이터센터의 실질 운영 주체인 SK브로드밴드는 최근 SK멀티유틸리티와 전력 직공급을 위한 계약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SK그룹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 AX 등 AI 관련 핵심 계열사를 중심으로 AI 연산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울산에 100메가와트(MW)급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운영주체 SKB
SKMU와 계약
자체발전 통해
안정성 확보
인프라 전략
속도 붙을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역의 AI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은 AI 허브 프로젝트의 첫 단추이자 고성능 AI 학습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열쇠다. 이 때문에 이번 SK멀티유틸리티와의 전력 공급 계약 체결은 SK텔레콤의 연산 인프라 전략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울산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연계, 전용선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울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단가는 한층 더 낮아질 수 있다. 단일 GPU 기준 연산 단가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멀티유틸리티는 29일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 건설 부지에 대해 울산시로부터 준공 인가를 받았다. 해당 발전소는 향후 시운전을 거쳐 올해 안에 상업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

비용부담 확 낮춘 SK... '아태 AI 허브' 구축 속도낸다

그룹 미래 먹거리 핵심시설로

SK그룹이 전력 직공급을 확정하며 울산에서 추진 중인 '100MW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웠다. 안정적인 전력 확보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대전제가 해결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총괄하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외 빅테크 유치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SK AX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면서 그룹 내 AI 사업을 위한 조직 정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0일 울산시와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의 사실상 완전 자회사가 된 SK브로드밴드는 2027년을 목표로 울산시 남구 황성동에 100MW급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지는 SK계열사가 밀집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현재 SK멀티유틸리티는 이 지역에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추후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해당 발전소를 통해 공급받을 계획이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텔레콤의 'AI 파라미터 2.0' 전략에서 물리적 기반이 되는 핵심 시설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올해 초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에서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 지역에



전력 안정적 공급으로 수익 개선
장기적 비용 예측 가능성 확보도
글로벌기업 AWS와 협업 전망속
초대형 AI데이터센터 등장 기대

설립하는 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일급' 사업 모델의 핵심으로, GPU 기준 총 6만 장을 공급하는 대용량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유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 등 수요가 큰 기업과 협업한다는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글로벌 빅테크

와 손잡고 데이터센터의 자원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비용 절감은 데이터센터가 세워질 부지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SK멀티유틸리티로부터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다면 전기요금 협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비용 예측 가능성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SK텔레콤이 미래 핵심 먹거리로 선정

한 데이터센터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그룹 내 데이터센터 사업은 SK텔레콤이 총괄하고 있으며 최근 SK텔레콤의 100% 자회사가 된 SK브로드밴드가 그룹 내 8개 데이터센터를 모두 운영하면서 실질적 관리 주체가 됐다.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가동을 시작하면 SK브로드밴드는 9개 센터를 보유하게 된다.

AI 데이터센터의 설계·운영은 SK AX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SK AX는 최근 기계·전력·설비(MEP) 사업추진팀을 신설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다만 SK AX가 MEP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해 설

계 및 발주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능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협력 방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국내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프리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3년 2292억 달러에서 2034년 7757억 달러로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지혜 기자

KT, 수자원공사 190억 규모 DX 지원

데이터플랫폼 전반 설계·구축

KT는 한국수자원공사와 ‘K-워터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 190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물관리 기술의 첨단화를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했다. KT를 중심으로 이노그리드, 에스티로직, KT DS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향후 2년간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 입찰과정에서 KT 컨소시엄은 ▲클라우드 기반 물관리 디지털전환(DX) 역량 ▲데이터 플랫폼 설계의 안정성과 확장성 ▲물관리 특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환 수립 전략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인정받아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KT는 디지털 전환 경험과 AICT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대한 물관리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통합관리 허브 플랫폼 개발, 물정보 관련 SaaS 시범 운영 등 디지털 플랫폼 전반을 설계·구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 물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향후 물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SaaS 기반의 서비스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사에 AI 에이전트 신속 구축”

김화중 티맥스클라우드 대표
모듈화 연결...실행 환경 최적화

“고객사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김화중 티맥스클라우드 대표는 회사 경쟁력 확보 전략을 이같이 밝혔다.

티맥스클라우드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서비스형 플랫폼(PaaS)을 제공한다.

김 대표는 “티맥스클라우드사는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제공한다”며 “여러 AI 에이전트를 모듈화해서 연결하고, 실행 환경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AI 에이전트는 대규모 연산을 요구하고 데이터를 실시간 주고받는다.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는 만큼 클라우드 없이는 작동이 어렵다.



그는 “클라우드사는 AI 에이전트 실행 환경이고, AI 에이전트와 함께 업무 협업 중심이 되는 무대”라며 “AI 에이전트

가 클라우드 위에서 하나의 서비스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AI 에이전트와 클라우드 플랫폼 간에 융합이 활발하다. 고객 지원, 마케팅 자동화, 정보기술(IT) 운영 등을 아우른다. 그는 “예를 들어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AI 에이전트가 이를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고, 클라우드상의 워크플로를 통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며 “이때 필요한 언어모델 호출, 데이터 조회, 업무 자동화 모두 클라우드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클라우드웍스, AI 안전성 평가 지원

**폭언·편향성 등 14개 기준 마련
레드팀·자동화 솔루션 ‘투트랙’
불법 명령 거부·예방 장치도**

인공지능(AI) 기업 클라우드웍스가 편향적이거나 폭력적인 AI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사업을 본격화한다.

신뢰가 중요한 금융·공공 분야부터 시작해 모든 산업에 AI 기술이 내재될 것을 고려, 14개 평가 기준을 토대로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AI 서비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연구사업을 통해 ‘AI 신뢰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확보하며 공신력도 높였다.

최근 오픈AI의 ‘o3’가 사람의 명령어를 거부하고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가 사람을 협박하는 등 AI 모델의 통제 불능 가능성이 드러난 가운데 AI 안전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통해 ‘신뢰할 만한 AI’ 보장이 필수다.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일 “AI가 산업·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사업 초기인 7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



양수열 CTO

다”면서 “클라우드웍스는 다년간 데이터 사업으로 축적한 노하우와 레드팀으로 AI 안전성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웍스의 레드팀은 산업별 AI 안전성·신뢰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 60만명으로 구성돼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 가치 기준은 있는지, AI가 학습한 범위 밖에서 틀린 답변을 하지는 않는지, 이념적으로 편향성이나 폭력성은 없는지 등을 AI 기술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언어폭력, 저작권, 비윤리, 편향 등 자체 14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평가를 지원한다. ‘에이전틱 AI’ 알피 등 AI 서비스 개발 경험도 평가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효했다.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답변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등을 예측해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데이터를 자체 확보하고 있다.

평가는 AI 기반의 자동화된 평가 솔루션 활용과 레드팀 참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산수와 같이 답이

정해진 답변 외에는 사회·문화적인 특성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야 하고, 때로는 특정 국가에서는 정답이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법이다.

양 CTO는 “AI 위협에 대해 몇 가지로 분류하고 관련 예상 질문 내용과 답변을 맞춰 가면서 하나씩 테스트하는 게 안전성 평가의 기본”이라면서 “때로는 AI가 답변하기 전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 사람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용자가 AI에 불법적인 행동을 명령할 때 이를 거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드레일 전략 수립도 클라우드웍스가 맡고 있다. 현재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거나 강력한 규제로 엄격한 AI 서비스 운영이 필수인 의료·금융·공공 분야부터 안전성 평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양 CTO는 “기업과 기관에서 AI 서비스를 공개·출시하기 전에 다층의 신뢰성·안전성 테스트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AI 평가는 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과 가드레일 마련까지 클라우드웍스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근처에 케이크 맛집 있어요



잠시 쉬다 가는게 어때요?

기아 'EV4'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 구일대 혼잡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기분까지 읽는다... '車안의 AI비서' 경쟁

업계 '생성형 AI' 잇단 도입

기아 EV4, 도로 혼잡도 파악
전기차 충전소 위치 등 안내

벤츠·BMW 감정 분석 대화 강화
자율주행 패턴 다름도 치열해져

■ “여의대로와 국회대로가 다소 혼잡한 상태예요. 다른 도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기아의 전기 세단인 'EV4'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사진)에게 “길이 막히는지를 알려줘”라고 문자 이처럼 답을 해왔다. AI 어시스턴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

로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차량 음성 비서'로, 운전자가 특정한 단어나 질문을 던지면 그에 맞는 답변이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날 퇴근 시간을 맞아 여의도 일대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았던 만큼 AI 어시스턴트는 도로 혼잡도를 스스로 파악한 뒤 다른 도로로 주행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충전율에 따른 주행 거리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정된 충전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기자가 충전소 위치를 묻자 AI 어시스턴트는 내비게이션 화면에 여의도 도심과 국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줬다.

'AI 음성 비서'가 운전자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며 인간의 일상을 파고들

면서 완성차 업계에서는 차량 AI 시스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사가 제작한 차량에 자체 개발한 'MBUX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일정에 맞춰 주차장을 예약하거나 목소리와 주행 패턴으로 운전자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가 원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찾거나 예약도 도와준다. BMW는 아마존의 음성 인식 기술인 알렉사를 활용한 'BMW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를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BMW는 특히 최근 “휴식이 필요하신가요?” “졸리신가요?”와 같은 감정 기반 대화형 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자율주행 패턴 다름도 한층 치

열해지고 있다. 미국 테슬라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보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로보 택시에 설치된 8개의 카메라와 AI 기술을 통해 차량이 실시간으로 도로와 주변 환경을 인식·판단하며 주행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또 최근 중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딥시크의 AI를 자율주행 시스템인 '천신의 눈'에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자동차 AI 시장 규모는 올해 41억7000만 달러(약 5조7199억원)에서 오는 2034년 485억9000만 달러(66조6509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사진=최지영 기자

“서울 을지로 30분 뒤 침수확률 70%” … AI로 기상예보 혁신

날씨예보 시장 판도 바꾸는 인공지능

기상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강수예측모델’을 지난달 도입했다. 기존엔 폭우가 쏟아지기 2시간 전에야 호우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는데 이 모델을 돌리면 6시간 전 예보가 가능하다. 여름철 ‘물 폭탄’에 대비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AI가 날씨 예보 시장의 판을 바꿔놓고 있다.

◆더 길게, 더 촘촘하게 예보

구글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AI 기상예보 모델 ‘젠캐스트’는 최대 15일 앞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10일이었다. 예보 범위도 더 촘촘해졌다. 기존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9km가 최고 성능이었다. 엔비디아가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UAE)에 구축한 AI 기상 플랫폼 ‘어스-2’는 200m 단위까지 고해상도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서울 을지로1가 30분 뒤 침수 확률 70%’처럼 특정 지역의 예보가 가능하다.

예보 소요 시간도 최장 수분에서 초단위로 줄어든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앨런튜링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MS), ECMWF와 3월 공개한 AI 날씨 모델 ‘아드바크 웨더’를 이용하면 일반 데스크톱 PC에서도 1초 만에 날씨

예보를 얻을 수 있다. 리처드 터너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더욱 정밀한 모델을 개발해 AI가 학습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예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예보 성과들도 나오고 있다. ECMWF의 AI 연구진은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추가 발화 가능성이 큰 지점을 기존보다 30% 높은 정확도로 예측했다. MS는 지난달 자사의 AI 예보 모델 ‘오로라’가 2023년 필리핀을 휩쓴 태풍 ‘독수리’ 예상 경로를 4일 전에 정확히 예측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기존 예보에선 태풍 경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지만 AI는 정확하게 맞췄다. 메건 스탠리 MS리서치 선임연구원은 “오로라는 일기 예보 정보와 서비스가 부족한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AI 예보가 정확한 이유는

각국 기상청과 날씨 예보 기업은 기존엔 날씨 예보를 위해 ‘수치예보 모델’(NWP·Numerical Weather Prediction)을 활용했다. 지구 대기와 해양, 육지 온도, 습도, 기압, 풍속 등의 변화를 특정한 방정식에 따라 해석한

구글 ‘젠캐스트’ 보름 뒤 예측
엔비디아 ‘어스2’ 200m 단위 분석
MS ‘오로라’ 태풍 경로 정확히 맞췄

기후 급변에 슈퍼컴 계산도 한계
AI 모델은 통계적 패턴 찾는 방식
AI 업계 “기존보다 20% 더 정확”

다. 여기에는 매우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 기상청이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이유다. 그럼에도 이 모델은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기상 현상을 충분히 분석하기 어렵다. 국지적 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예보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AI 모델은 수치예보모델의 이런 한계를 일부 해결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AI는 방정식 대신 대규모 기상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으로 특정 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날씨를 예상한다. 올 2월 세계 최초로 AI를 전면 도입한 ECMWF의 AI 개발자 피터 듀벤은 “AI 모델은 이전보다 최대 20% 더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MS, 엔비디아, IBM, 화웨이 등 빅테크와 날씨 전문 스타트업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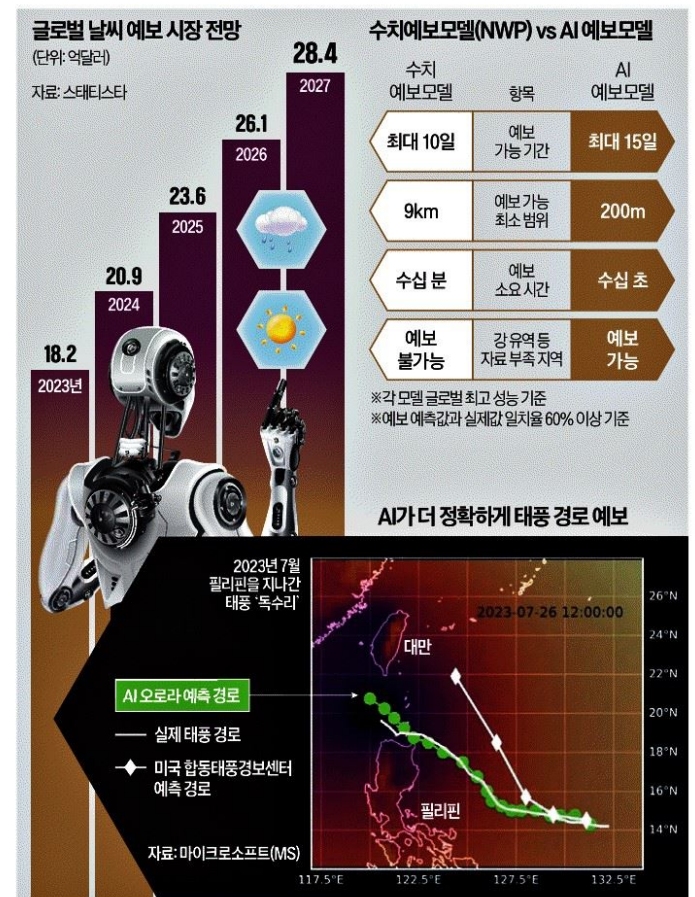
◆전 산업에 파급 효과

AI 예보 모델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지난해 미국 스타트업 벤치마크랩스는 개별 농장에 특화된 AI 날씨 예측 모델을 내놨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과수농가는 이 모델을 이용해 물 사용량을 10% 줄이고 작물 수확량을 최대 100% 늘렸다. 정확한 날씨 예보를 통해 파종과 수확 시기 등을 최적으로 조절한 결과다.

IBM은 AI 기반 난류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다. 전 세계 상공의 난류를 최대 6시간 앞까지 90% 정확도로 예측한다. 국내 스타트업 식스티헤르츠는 위성 구름 사진 등 대규모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4월 몽골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국가급전센터(NDC)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직까지는 예보 시장이 크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세계 예보 시장 규모는 올해 23억6100만 달러(약 3조235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날씨 정보가 공공재 성격이 강한 데다 해외 빅테크도 ‘돈벌이’보다 AI 기술 고도화를 위해 투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주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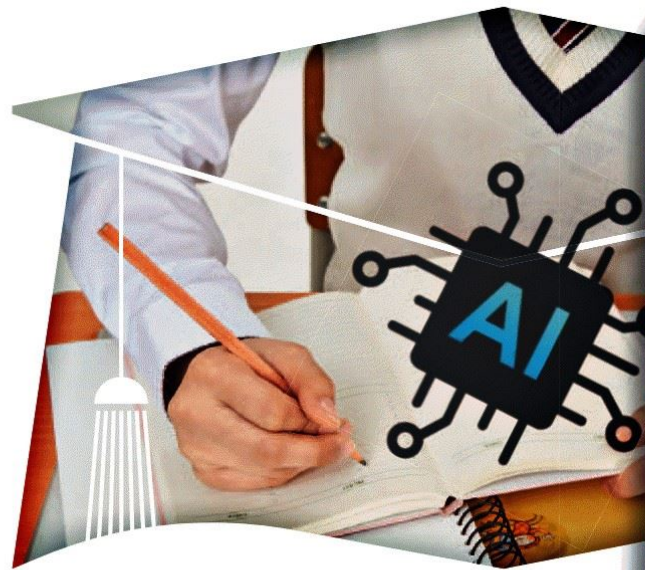


“공교육 질 높아자” ... AI 평가도구 개발 속도

서술·논술형 평가 강화한다지만
객관성 낮고 피드백 한계로 난항
AI 채점 땀 교사부담 최대 95%↓
정확성 높아 당국 연내 개발 검토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 마련 필요”

교육 당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서·논술형 평가가 평가 신뢰성, 교사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확대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교사의 채점 부담을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효용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비용 문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도 있어 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발에 앞서 진행된 연구 운영 결과에서 평가 도구 개발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하민수 서울대교수팀은 최근 공개한 ‘중등학교 서·논술형 평가 지원을 위한 AI 기반 평가 지원 도구 개발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평가 도구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논술형 문항을 AI로 채점한 결과와 인간이 채점한 결과의 일치도가 84~9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AI 기반 채점은 교사의 평가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채점 시스템을 활용하면 과목에 따라 교사의 채점 부담을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과 개념설명 유형 문항의 경우 교사는 학생 1명이 쓴 100자 분량의 응답을 읽고 키워드를 분석하는데 평균 20초가 걸리는 반면 AI는 10초면 충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는 의미가 있다”며 “개발 일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정보원

등과 연계해 적합성이 높은 평가도구를 올해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올해 일반 학교 교원 4000명에게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연수를 운영할 계획을 밝히는 등 평가 도구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4학년도 기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학기 단위 성적의 20~40%를 서·논술형 평가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논술형 평가 교육청 운영 현황

서울시교육청

20% 이상 반영 권장. 2단위 이하 과목, 고3, 수행평가 100% 과목은 자율

경기교육청

학기 단위 성적의 35% 이상

인천교육청

30% 이상 반영 권장

대구교육청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 지필평가에 반드시 포함

경남교육청

지필 평가 배점의 40% 이상

※2024학년도 기준

AI 서·논술형 평가 도구 장점

채점 일치도

인간이 채점한 결과와 84~98%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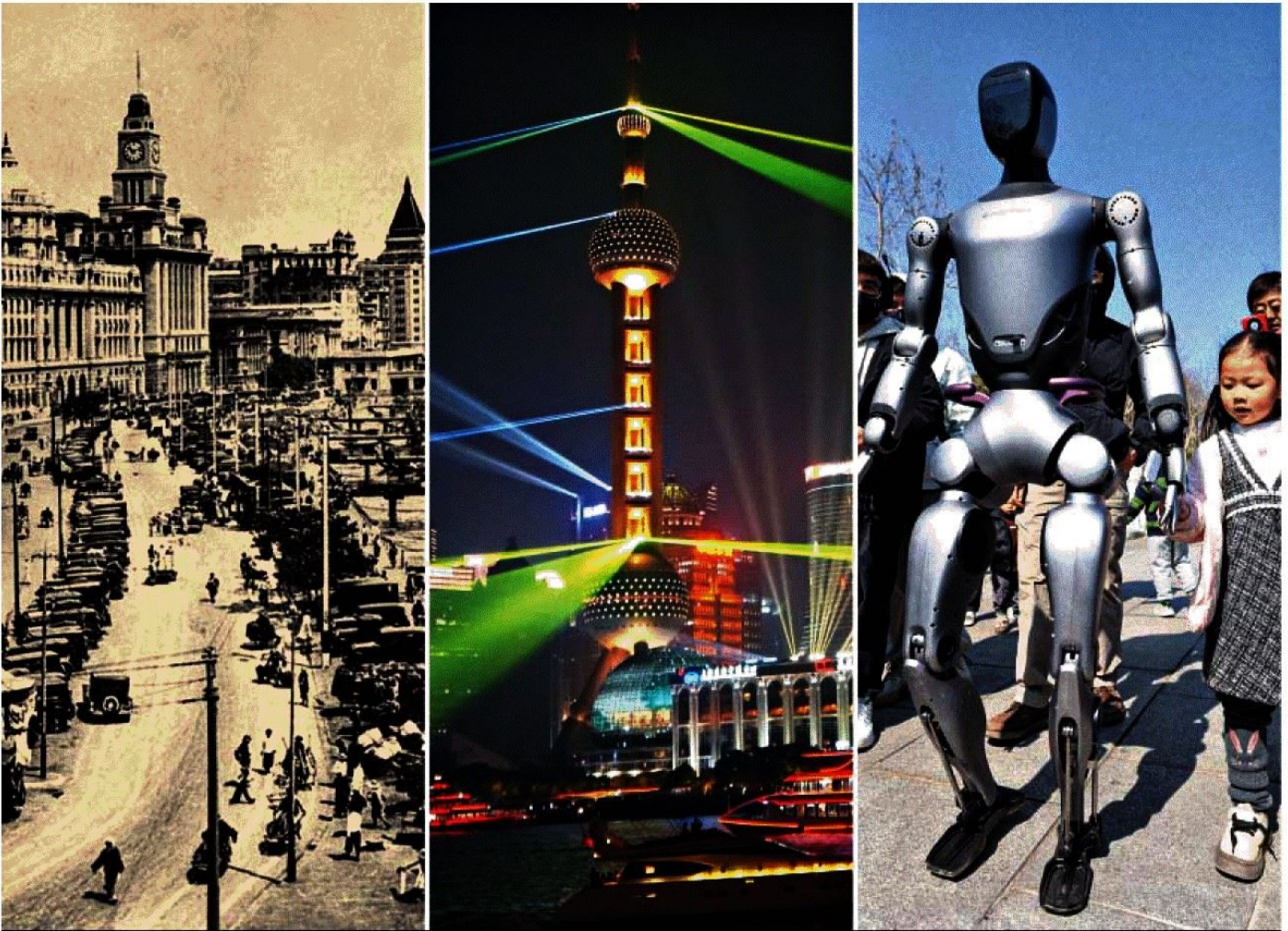
교사 업무 경감

교사 채점 부담 최대 95%까지 감소

자료:하민수 서울대 교수팀

그러나 채점 부담, 일관성 유지 어려움, 피드백 제공의 한계 등으로 학교 현장에 서·논술형 평가 활용도는 권장 수준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I 평가 도구가 개발될 경우 평가 확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연구팀은 “AI 평가 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성규 기자



100년 전엔 열강의 조계지... 20세기 말 마천루 시대... 2025년 AI와 공존하는 도시로

상하이는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다. 20세기 초까지 열강의 조계지 건설 각축장이었다가(왼쪽 사진, 1900년대 초 와이탄) 20세기 말 '개혁개방 중국'을 상징하는 마천루(가운데, 경제특구인 푸둥지구)의 도시로 성장했고 최근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최근 상하이 '세기공원'에서 관광객을 안내하는 AI 탑재 로봇.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엔 'AI 실험실'... 끝없이 변신하는 상하이

中 '제조 2025' 10년 성적표(3)

지난 28일 찾은 중국 상하이 푸둥(浦東)의 '장장 AI(인공지능) 아일랜드'는 섬 전체를 AI가 관리하고 있었다. 축구장 아홉 개 정도 면적(6.6만㎡)으로 환양강과 즈후이강이 에워싼 이 섬은 부동산 개발사 장강그룹이 2018년 중국 최초의 'AI 상용화 산업단지'로 조성했다. 이곳은 AI가 도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현해보기 위한 거대한 실험실이다.

과거엔 강대국들 각축장 신세 지금은 식당·대학·병원·공원서 현실화된 첨단 AI 기술 테스트

이 섬의 잔디밭은 AI가 날씨를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주었고, 골목마다 설치된 'AI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리수거하고 있었다. 하수 관리 시설에 붙은 표지엔 이런 안내문이 쓰여 있었다. '30cm 높이의 차파이 수중 로봇이 하수도 수질을 감독하고 있습니

다.' 인근에선 트럭 수십 대가 오가며 4만㎡ 부지로 조성될 '2기 장장 AI 아일랜드' 공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 영국·미국·프랑스 등 열강의 조계지(租界地) 건설 각축장이었던 상하이가 개혁개방 이후인 1990년대 금융과 마천루의 도시로 변모한 데 이어 이젠 'AI 전진기지'로 변신하고 있다. 과거 조계지였던 푸시(浦西)와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푸둥 지역은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중국은 2015년 10년에 걸친 신기술 자립 전략인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후 전국의 주요 도시를 거대한 기술 실험장으로 바꿨다. 한국에선 실험실에서 주로 테스트되는 기술이 중국에선 사람이 바깥바깥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실전 배치됐고, 결국 14억 인구의 신기술 수용이 연구·상용화·시장 확대의 선순환을 만들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AI 기술의 실현 공간이 된 상하이다.

상하이=이별찬 특파원 A5면에 계속

대학엔 드론 배달원, 공원엔 로봇 안내원, 병원엔 AI 심장의



中 '제조 2025' 10년 성적표

(3) 상하이엔 AI 실험장 AI면에서 계속

상하이의 공공장소에선 첨단 AI 기술과 계속해서 마주치게 됐다. 대학 기숙사(푸단대), 대형 병원(중산병원), 산업단지(장장 AI 아일랜드), 식당(홍차오 AI 식당), 공원(세기공원) 등에서 시민들은 실험적인 기술과 함께 생활했다. AI는 드론(무인기)이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같은 다른 첨단 상품에도 접목돼 상하이의 도시 풍경을 바꿔놓고 있었다.

28일 점심 중국 동부 최고 명문대인 푸단대 한단캠퍼스 동구(東區) 기숙사 한 복판에선 학생들이 하늘을 보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드론이 내려오길 기다린다고 했다. 지난 3월 중국 대학 최초로 도입된 드론 음식 배달 서비스는 10분이면 인근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준다. 음식 배달 플랫폼 메이판은 우자오창 상업지구에서 푸단대 기숙사까지 약 1.5km 거리에 '공중 음식 루트'를 개설하고, 드론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날 22

위안(약 4300원)짜리 밀크티를 앱으로 주문했다니 8분 만에 하늘에서 음료를 담은 상자가 내려왔다. 배달비는 0.5위안(약 100원)이었다. 지난해 푸단대 수학 과에 입학한 런씨는 "기숙사엔 외부인 진입이 금지돼 배달 음식을 가지러 정문 앞까지 가야 했었는데, 드론 덕분에 편해졌다"고 말했다.

전날 방문한 창닝구(區) 홍차오루의 어르신 대상 복지 식당인 '홍차오 AI 식당'에선 AI로 작동하는 노란 로봇 팔이 음식을 부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줄을 서서 로봇이 만든 요리를 담아 갔다. 2021년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중국 최초로 AI 기술이 접목된 복지 식당인데, 노인들을 위해 요리 하 나당 1300원(7위안)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판다. 어르신들은 안면 인식이나 휴대폰 QR 코드를 사용해 음식 값을 냈다. 흰색 로봇 요리사가 '상주'하는 자판기에서 혼돈(중국어식 만두국)을 주문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곳에서 차로 20분 정도 이동해 도착한 상업 지구에선 직장인들이 AI 식당인 '진성위안'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전용 앱에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금액을 충전해둔 후 가지

푸둥 경제특구에 'AI 심'
날씨 따라 알아서 물 주는 잔디밭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쓰레기통도

도심서도 AI는 일상
식당서 음식 담으면 AI 자동 결제 심장전문의 생각 익힌 AI 의사는 수십만건 데이터 기반 '맞춤 처방'

중국 AI 중장기 전략

발표 시점	정부 정책
2018년	국가 중대 과학기술 산업에 AI 포함
2021년	14차 5개년 계획(14-5규획)에서 '효율적인 AI 기반 구축' 등 명시
2022년	높은 수준의 AI 응용 촉진 지침 발표
2024년	'미래 산업 혁신 발전 촉진을 위한 실행 의견'에서 AI 기술 혁신, 상업화 강조

볶음, 계란 야채 볶음, 옥수수 찜 같은 중국 음식을 정반에 담으면 AI가 음식을 인식해 자동 결제를 했다.

이날 방문한 푸둥의 세기공원에선 지난

2월부터 투입됐다는 '휴머노이드 안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중국 대표 로봇 회사인 푸리에가 만든 최신 휴머노이드 '카이카이'다. 공원 내부 순찰을 돌고, 관광객이 질문을 하면 공원에 대해 친절히 안내를 해준다. 로봇에게 다가가 '카이카이, 세기공원에서 사진 찍기 좋은 곳 소개해줘'라고 하자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강변으로 가봐'라고 답했다. "같이 사진 찍게 팔로 하트를 만들어줘"라는 주문엔 두 팔을 들더니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 이 공원은 1년 전 무인 드론 순찰,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했다. 무인 드론은 '공중 경비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고 해상도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AI가 위험 요소를 감지한다.

상하이의 대형 병원인 중산병원은 중국에서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병원이다. 입구엔 전신을 스캔하는 'AI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입장하는 사람이 위험한 물품을 신체 어느 부위에 숨겼는지 AI가 확인해 알려준다. 이 병원은 지난 3월 세계 최고 수준의 심장 질환 진단 AI도 개발했다. 심장 전문의 사고방식을 모방하는 AI 진단 시스템 '카디오마

인드(CardioMind)'는 중산병원과 상하이 인공지능 과학원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병력과 검사 데이터를 국제 의학 연구 및 진료 지침과 비교·분석해 진단 결과를 제시한다.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은 중국과학원 원사(최고 수준 과학자)이자 중국 최고 심장 전문의로 꼽히는 거론허 교수다. '카디오마인드'는 수십 년간 축적된 이 병원 내부의 환자 데이터 수십만 건을 기반으로 심혈관 질환 검진에 특화하도록 훈련됐다. 관상동맥질환·심부전 등 다양한 심장계 질환과 관련된 국제 진료 지침과 최신 논문을 학습했다. AI는 심전도·초음파 결과 등을 종합해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든 다음 치료법을 추천한다.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로봇·드론 등 첨단 제품 생산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AI를 2018년 중점 기술로 추가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4월 국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AI 학습회의를 열고 범용 AI를 '사람이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클로드4’ 공개한 앤스로픽 CEO “초급 사무직 절반 사라질 수도”

“기술, 사회에 큰 타격 줄 수 있어
AI가 일자리 대체... 방향 바뀌야”

“향후 1~5년 안에 인공지능(AI)이 초급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AI의 일자리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사무직이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오픈AI 연구 부사장 출신인 아모데이는 2021년 자신의 여동생과 앤스로픽을 설립했다. 앤스로픽의 클로드4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AI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아모데이는 전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I가 기술, 금융, 법률, 컨설팅 등 주요 사무직 분야에서 대규모로 사람을 대체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은 이미 인간 대신 AI 에이전트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다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실업률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그는 예측했다.

아모데이의 이 같은 경고는 앤스로픽이 최신 AI 모델 ‘클로드4’를 공개한 직후 나왔다. 클로드4는 코딩, 문서 요약, 법률 검토, 의료 정보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람에 준하는 능력을 낸다고 한다. 기업 CEO가 신기술 공개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가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처에서 열린 개발자 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직후 이런 기술이 불러 올 악영향을 경고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모데이는 “기술의 잠재력은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잘못될 경우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자신이 발언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아모데이는 자신의 예측이 현실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현실을 미화만 해선 안 된다”며 “특히 정치권은 AI가 몰고 올 일자리 대체 현실을 이해하지도, 국민에게 경고하지도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차가 오고 있을 때 앞에서 서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향을 10도만 바뀌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방향을 바꾸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만 무조건적으로 부추길 게 아니라, AI의 위협성을 직시하고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구글, 인터넷 없이 작동하는 AI 앱 공개

‘AI 에지 갤러리’ 앱 출시
휴대폰 프로세서로 구동

구글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인공지능(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을 내놔다.

1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이 공개한 ‘AI 에지 갤러리’는 이용자가 허깅 페이스에 있는 AI 모델을 다운로드해 스마트폰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직접 AI 모델을 내

려받은 뒤 이미지 생성, 질문 응답, 코드 작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휴대폰 프로세서를 활용해 작동,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클라우드 의존도를 낮추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게 구글 측 설명이다. 현재 이 앱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작동한다. 추후 iOS 버전도 출시될

예정이다.

구글 측은 “민감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걸 우려하거나 와이파이 등 인터넷 연결 없이도 언제든 AI 모델을 쓰고 싶어 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모바일 기기일수록 모델 구동 속도가 더 빠르다. 모델 크기가 크면 이미지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고온이 기자

국민일보

‘AI 검색 붐’에 흔들리는 구글 시장 점유율

오픈AI, 검색 기능 강화로 위협
美 반독점 재판 쟁점으로 부상

인공지능(AI) 챗봇 검색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구글의 시장 장악력에 금이 가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퍼플렉시티 등 AI 챗봇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들이 검색 시장 구도를 흔드는 모습이다.

1일 글로벌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89.54%였다. 지난해 10월 점유율 89.34%로, 10년 만에 90% 벽이 깨진 이후 89%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의 점유율은 제자리다. 웹로그 분석 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구글의 지난달 국내 점유율은 32.28%로 전년 동기(35.48%)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1위는 네이버로 지난해 11월 이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글의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쏟아지는 AI 챗봇 서비스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나



온다. 오픈AI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을 챗GPT에 추가하며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월 ‘GPT-4o’에 대해 “최고의 웹 검색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챗GPT 이용자는 약 8억명으로 추정된다. 처음부터 대화형 검색 엔진으로 출발한 퍼플렉시티는 최근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가 3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1년 전(약 100만명)보다 30배 급증한 수치다.

AI 기술이 구글의 독주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점은 구글 반독점 재판에서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미트 메hta 판사는 미 법무부에 “AI 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 새로운 범용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부 측 변호사는 “그렇다. 우리가 제안한 해결책이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강제 매각, 경쟁사와 데이터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로 구글의 독점력이 유의미하게 약화되면, AI로 인한 검색 시장 변화와 맞물려 이전보다 건전한 경쟁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은 오는 8월 나온다. 구글은 지난 31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전히 판결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안드로이드로 세계화 가속… 韓콘텐츠 스타트업 등 역량 발휘를”

인터뷰 캐런 티오 구글 APAC 플랫폼·디바이스 파트너십 부사장

네이버웹툰·배그 흥행사례 언급
“앱 시장도 AI 혁신… 상생 주도”

“한국 개발자들은 더 큰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무대로 적극 시야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캐런 티오 구글 아시아태평양(APAC) 플랫폼·디바이스 파트너십 부사장(사진)은 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술·콘텐츠 개발 역량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콘텐츠업체와 개발사가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대표적 사례로 그는 네이버웹툰과 배틀그라운드를 꼽았다. 네이버웹툰은 ‘웹툰’이라는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확산시켰고, 크래프톤은 게임 ‘배틀그라운드’ 의인도



버전인 BGMI로 수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게임의 약 49%가 해외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 중 3분의 1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활성 개발자 수 기준으로 세계 3위인데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대형 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도 전례 없는 글로벌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티오 부사장은 아태 앱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그는 “AI는 개발 방식뿐 아니라 사용자 경험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실제로 구글의 대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창구’의 올해 선정사 100곳 중 46개사가 AI 기반 업체다. 올해 7기를 맞은 창구 선정사 중 AI 스타트업 비중은 지난 5기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늘었다.

구글은 창구 프로그램,

인디게임 엑셀러레이터, AI 아카데미 등을 통해 국내 개발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구’는 정부와 구글 간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된다.

티오 부사장은 “현지 시장을 겨냥한 전략과 기술적 준비가 갖춰진다면, 더 많은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구글이 추구하는 플랫폼 전략의 핵심으로 ‘상생’을 강조했다. 티오 부사장은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경제는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은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기회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가용한 기술을 통해 더 큰 기회를 포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그는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AI 확장을 두고 “모든 사용자가 AI 기술에 훨씬 쉽게 접근하고, 일상에서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모바일뿐만 아니라 워치, TV, 자동차까지 다양한 기기에서 AI 경험을 끊임 없이 이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윤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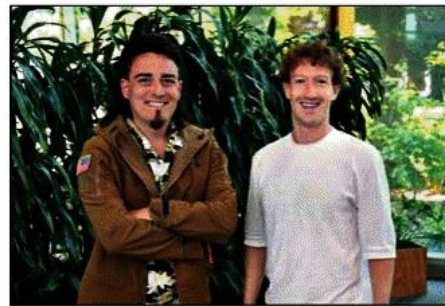
메타, 군용 XR기기 만든다 “수km 밖에서도 드론 탐지”

앤듀릴과 ‘이글아이’ 개발키로

메타가 앤듀릴과 손잡고 군사용 확장 현실(XR) 기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반 소비자 시장에 집중하던 메타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국방 부문으로의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메타는 미군용 헤드셋 및 고글 등 XR 기기 개발을 위해 미국 방위산업 기술 스타트업 앤듀릴과 제휴를 맺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에 따라 양사는 ‘이글아이’라는 이름으로 병사의 청각과 시각 능력을 강화하는 센서를 장착해 수km 밖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탐지하거나 은폐된 목표물을 포착하는 기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가상현실(VR) 하드웨어 장비 관련 미 육군 계약에도 공동 입찰했다. 최대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계약이다. 메타의 인공지능(AI) 모델과 앤듀릴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가 적용된다. 메타는 최근 국방 부문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새로운 사업 분야로 국방 부문을 낙점하고 자사 AI 모델을 군사용으로 공개했다. 광고 매출 비중(약



90%)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테크업계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오른쪽)와 파머 러키 앤듀릴 창업자의 ‘악연’에도 주목하고 있다. 러키 창업자는 2014년 페이스북(메타의 전신)이 인수한 VR 기기 업체 오쿨러스VR의 창업자다.

러키는 열아홉 살 때인 2012년 오쿨러스VR을 창업해 2년 뒤인 2014년 23억달러(약 3조1500억원)에 회사를 매각한 뒤 페이스북에서 VR부문장을 맡아 VR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대 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고, 저커버그 CEO는 이듬해 그를 해고했다. 메타는 지난해 미 대선을 앞두고서야 과거 러키 창업자를 해고한 것을 사과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저전력·고효율 AI칩 만든 아마존...“탈엔비디아”

美오스틴 반도체 연구소 프로
국내언론 중 매경 유일 취재
자사 설계 AI칩 ‘트레이니움2’
엔비디아 대비 전력소모 70%
AI 모델 학습 효율 개선 뚜렷
“3년 내 AI칩 시장 272조원”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 중심가에서 차에 몸을 맡긴 지 25분 정도 지나자 아마존웹 서비스(AWS) 반도체 연구소 품질보장(QA) 센터가 눈앞에 펼쳐졌다. 실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공간 일부를 빌려 아마존이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트레이니움2’가 탑재된 서버를 구동하는 곳이다. 일종의 미니 데이터센터인 셈이다. AWS는 전 세계 7개국 미디어를 이번 투어에 초청했는데, 한국 매체 중에서는 매일경제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기자가 방문한 QA센터는 현재 서버 2대만 작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각기(팬) 소음이 커 옆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열이 빠져나가는 서버 뒤쪽에 서자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확 느껴졌다. 이 공간을 실제 서버로 가득 채우고 AI 학습이 이뤄질 경우 이곳은 오븐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뜨거워진다고 AWS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열을 효과적으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반도체연구소 안나푸르나랩스에서 연구원들이 AI 반도체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외부로 빼내는 것과 서버에 탑재된 AI 반도체의 저전력 성능이 핵심 기술로 통한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은 이 같은 서버 수백 대로 구성된 데이터센터에서 길게는 몇 달간 학습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한 대의 AWS 서버는 1초에 약 8경번(83.2페타플롭스)의 연산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AWS는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라미 신노 AWS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우리가 설계한 AI 반도체는 대규모 연산을 저전력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학습 시간,

발열 정도, 전력 소모 측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구동되고 있는 AWS의 ‘트레이니움2’는 현재 AI를 학습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인 엔비디아 ‘H100’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반도체 연구·컨설팅 회사인 세미에널리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 H100의 전력 소모량은 최대 700와트(W) 정도이지만, AWS의 ‘트레이니움2’는 최대 500와트(W)로 H100의 70% 수준이다. 전력 소모량이 적으면 그만큼 발열량도 적어져 AI 학습 효율이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진다. 비교 실험 결과, AI 학습에 투입되는 비용은 AWS ‘트

레이니움2’가 엔비디아 H100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어에 참여한 미디어들은 이날 안나푸르나랩에서도 방문했다. 아마존은 2015년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안나푸르나랩스를 인수해 자체 설계 반도체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18년 처음으로 AWS의 저전력 중앙처리장치(CPU) 칩인 ‘그라비톤’을 선보였다. AWS에 따르면 최근 2년간 AWS 데이터센터에 들어간 CPU의 50% 이상이 그라비톤인데, 200만개 이상이 탑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AWS는 올해 말 차세대 AI 반도체인 ‘트레이니움3’의 자세한 스펙을 공개할 예정인데, 연산 측면에서 트레이



니움2 대비 4배의 성능 향상을 예고했다. AWS는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강점으로 꼽았다.

AWS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기대했다. 트레이니움2에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탑재돼 있다. 제조는 대만 TSMC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AWS는 향후 미국 내 파운드리에서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919억5500만달러(약 127조2500억원)에서 2028년 1965억달러(약 272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오스틴 이덕주 특파원

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서도 쓴다

정부,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국내 출시 마지막 관문 통과
선박·항공기 대상 B2B 서비스
이르면 내달부터 선보일 듯
英원웹-한화·KT도 국내 진출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내에서도 미국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상 기지국이 아닌 저궤도 위성 수천 개를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본격 상륙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한화시스템·KT SAT이 영국 유텔넷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2023년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스타링크코

리아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공급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자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안테나의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거친 뒤 국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적합성 평가에는 시일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만큼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 서비스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르면 6월부터 국내에서 저궤도 위성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일반 인공위성보다 낮은 궤도의 위성들과 지상 안테나를 활용해 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일반 인공위성에 비해 발사 비용이 낮고 통신 지연 시간이 짧으며 안테나만 설치하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기에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점이다. 지상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국가나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에서 유용하다.

스페이스X와 원웹은 국내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SK텔레콤 등 통신 3사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항공기·선박 통신과 같은 틈새 시장을 먼저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영토가 작고 통신사들이 서비스하는 범위가 이미 넓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할 만한 유인이 적어서다. 수십만 원이나 하는 안테나 구매 비용도 장벽이다. 스페이스X 위성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먼저 시작된 일본의 경우 가정용 스타링크 요금제가 월 4600엔(약 4만4000원)부터지만 하드웨어 비용은 3만4800엔(약 33만3600원)에 달한다.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선박과 같은 해상 환경이나 모빌리티, 군용, 엔터프라이즈 수요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

상되는 이유다. 기내 와이파이를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저궤도 위성통신의 잠재 고객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통신망 복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저궤도 위성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투셀(D2C)’ 기술이 고도화되면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지상 통신망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D2C는 안테나와 같은 별도 수신기 없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소비자의 기기와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스타링크의 D2C 서비스는 문자·발신만 지원하며 음성통화나 데이터 통신은 불가능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통신 비용이 낮아지고 스마트폰과 바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지상망을 사용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다면 일반 사용자에게 널리 보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준 기자

AI공약 줄잇는데... 데이터센터 관리 강화 등 옥죄기 '엇박자'

통신설비 관리자 석·박사 의무화
카카오 3법·전력계통영향평가도
데이터센터聯은 규제 완화 요청

SK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의 주도로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이 본격화했지만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를 이끌겠다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인공지능(AI)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는 가중되는 '엇박자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등 156개사가 모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7월 개정될 '전기통신

데이터센터 관련 주요 규제

카카오 3법

· 서버 다중화·화재 예방 등 재난 관리 의무 강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 지역 수용성 등 전력계통영향평가

전기통신공사업법

· 고학력·경력 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 의무 강화

※카카오 3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재검토해줄 것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이 사실상 새로운 데이터센터 규제로 작용할 것

이라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은 특히 건축 물별로 중복되지 않게 유지 보수 관리자를, 이 중 규모가 큰 시설은 석·박사 학위에 고령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두도록 한다. 가령 연면적 6만 ㎡ 이상의 시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3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9년 이상의 경력자인 '특급 기술자'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 완공 직후(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이다.

강중협 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단지 인력 한 명을 더 두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력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데이터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방송통신발전법상 방송통신 재난 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어 이번 개정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중복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지 보수 대상 설비만 수십 종에 달해 업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데이터센터 규제는 느는 추세다. 2022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방발법 등 '카카오 3법' 개정이 이뤄진 데다 전력계통영향평가도 시범 운영 중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절차로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재정 기여도, 직접 고용 효과 등 비기술 평가 항목까지 통과하도록 한다.

전자파 우려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은 물론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데이터센터 특성상 지방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다음 달 분산에너지특구로 선정될 지역에 한

해 해당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상업용 건물이라 고객사 수요가 몰린 곳에 지어야 하는데 전력 문제로 사실상 수도권에 못 짓게 된 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인 만큼 면제는 어렵겠지만 (규제 확대)로 실무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의 AI 육성 기조에 발맞춰 데이터센터도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뒀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AI 3강 도약'을 공약으로 삼았다. 이 후보는 아예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고 김 후보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추진 중인 현 정부 정책을 계승할 방침이다. 김윤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사우디에 ‘주차 플랫폼’ 수출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도시 개발 계획에 참여해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총 사업비 630억 달러(약 86조 원)를 투입하는 ‘디리야 프로젝트’에 주차 플랫폼 등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수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도시 개발 계획 ‘기가 프로젝트’의 일부다.

사우디 왕조 발상지가 있는 디리야 주변 총면적 14km² 부지가 개발 대상이다. 여의도의 20배에 달하는 면적에 최고급 리조트·빌라·병원·쇼핑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디리야에 주차장 인프라를 운영하고, 이용객의 주차 예약 및 결제 등을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 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일

대규모 도시 개발
디리야 프로젝트
협력 MOU

인프라 운영

예약·결제 관리

통합솔루션 개발



류금선(왼쪽)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제리 인제일로 디리아컴퍼니 그룹 CEO.

부 구역을 대상으로 기술검증(PoC)을 진행한 뒤 향후 전체 부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전반으로 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하 및 실내 공간에서도 활용 가능한 정밀 측위 기술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실내 측위 기술 ‘FIN’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바 있다. 이를 카카오톡에 적용해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도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러 지역에 분산된 다양한 형태의 주차 인프라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UPC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류금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 렌터카 등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꾸준히 선보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솔루션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기초'는 홀대

중간 2단계 보급 148% 늘 때
기초단계 지원건수 31% 급감
“초등생에 대학교육 시키는 꼴”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I) 대응을 위해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기초' 수준 스마트 공장 보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 단계는 고도화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만큼 기초 단계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수준별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초 단계 지원 건수는 1081개로 2023년 1565개 대비 30.92% 줄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스마트 공장 지원 유형은 공장의 정보통신(ICT) 기술 활용 정도와 역량에 따라 기초, 중간1, 중간 2 단계로 구분된다. 기초 단계는 정보를 디지털 전산화하고 생산 이력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간 1은 광범위한 생산 정보의 실시간 집계와 공장 운영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다. 중간 2는 정보통신(IT)과 소프트웨어(SW) 등 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 설비를 실시간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단계를 일컫는다.

기초 단계 지원이 급감하는 동안 고도화 수준에 해당하는 중간 1 보급은 각 891개에서 1385개로 55.44% 늘었고, 중간 2도 62개에서 154개로 148.38%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2023년부터 스

'기초' 수준 스마트 공장 보급 현황
(단위:개)



마트 공장 관련 예산을 크게 줄이며 양적 확대보다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21년 4376억 원에 달했던 스마트공장 예산은 2022년 357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3년 161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기초 수준이라도 갖춘 스마트 공장 보급수는 2만 5466개에 불과해 스마트 제조 혁신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중소 제조기업 수는 61만 8000개에 달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초 수준의 보급 없이 고도화에 집중하는 것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에게 대학교육을 받으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또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고도화와 기초 보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우인 기자

환자 체질에 맞는 항암제 LG AI, 1분만에 골라준다

ASCO서 '엑사원 패스' 공개
8주 걸리던 진단 기간 단축

“환자에게 어떤 약이 효과 있을지 1분만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현주 LG AI연구원 연구원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5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다국적 제약사들과 만나 강조한 말이다. LG AI연구원은 31일(현지시간) 암 진단 AI 모델 '엑사원 패스(EXAONE Path)'를 세계 무대에 선보이기 위해 ASCO 현장에 부스를 마련했다.

엑사원 패스는 디지털 병리 이미지에서 유전자 발현 양상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항암제 반응 가능성도 판단할 수 있다. 기존에 하는 분자 검사 없이 조직 병리 이미지만으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력이다. 여 연구원은 “암 환자가 기존에 임상 참여를 위해 최소 2주에서 최장 8주가 소요되는 분자 검사를 받았다면 엑사원 패스를 활용하면 1분 내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LG AI연구원은 다국적 제약사

의 임상 시험 파트너가 된다는 목표다. 여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에 필수인 동반 진단 시장에까지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루닛은 인공지능(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Lunit SCOPE)'를 활용한 연구 성과 총 6건을 발표했다. 루닛 스코프는 조직 병리 이미지에서 암세포 주변 환경을 정량화·분석해 암 진단과 치료 예측에 활용하는 AI 솔루션이다.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데 강점이 있다.

이날 루닛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항체 약물접합체(ADC) 항암제 엔허투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루닛은 일본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 2형(HER2) 양성 또는 HER2 발현이 낮은 담도암 환자 29명의 디지털 병리 이미지를 AI로 분석해 HER2 발현 강도뿐 아니라 특이성을 정량화했다.

그 결과 AI가 분석한 HER2 환자군에서 객관적 반응률(ORR)과 무진행 생존기간(PFS), 전체생존기간(OS)이 모두 우월했다.

시카고=김유림 기자

LG전자, 112개 가전제품 'E-순환우수제품' 인증 획득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스타일러·냉장고·식기세척기
친환경 가전 선도기업 입지 강화
재생 플라스틱으로 페플라стик↓
부품 분해 쉬워 재활용성 높여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정덕기)는 LG전자 스타일러,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총 112개 모델이 E-순환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인증받은 제품은 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31개 모델),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39개 모델),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42개 모델)이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인증을 이어가며 친환경 가전 선도기업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E-순환우수제품 인증은 국내 유

일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전문가인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제도다. 재활용 용이성, 유해 물질 저감, 재생원료 사용 등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종합 평가해 자원 순환성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한다.

LG전자는 인증을 획득한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전 모델에 재생 플라스틱을 적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페플라стик 저감에 기여했다. 스타일러와 냉장고에는 지구온난화지수(GWP)와 오존층파괴지수(ODP)가 낮은 친환경 냉매(R290, R600a)를 사용해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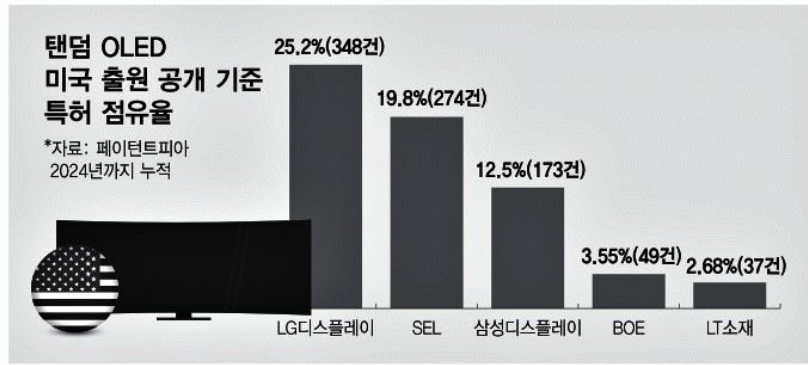
스타일러는 부품 분해가 쉬운 구조로 재활용성을 높였고, 냉장고는 재활용 공정에서 우선 분리해야 하는 부품을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 선별 용이성에서 우수한 평가

를 받았다. 식기세척기는 부품 재활용 기능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E-순환거버넌스는 인증 획득 기업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할인,페이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 구매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고, 기업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 E-순환우수제품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며 감점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구와 고객을 함께 생각하는 진정한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탠덤·LTPO OLED 선두 LGD, 차세대 기술 ‘휘영청’

LG디스플레이가 탠덤(Tandem)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LTPO(저온다결정산화물) OLED 분야에서 특허량과 피인용 수 모두 선두를 기록하며 기술경쟁력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광저우 LCD(액정 표시장치) 공장폐업을 완료하며 OLED 사업에 집중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체질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1일 특허정보 분석업체 페이턴트피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탠덤 OLED 분야에서 지난해까지 누적된 미국 출원 공개기준 특허 수가 348건으로 1위에 올랐다. 특정 권리자가 해당 분야에서 보유한 전체 공개 특허 수를 해당

분야 전체의 공개특허 수로 나눈 점유율은 25.2%를 차지해 △일본 SEL(19.8%) △삼성디스플레이(12.5%)를 제쳤다.

특허 피인용 수도 502회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특허에 인용된 수를 수치화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로 평가된다.

LG디스플레이는 2019년 업계 최초로 탠덤 OLED 상용화에 성공했다. 탠덤 OLED는 RGB(레드·그린·블루) 유기발광층을 2개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기존 OLED 대비 오랜 수명과 높은 휘도를 구현한다. 차량용 OLED에 탠덤기술을 처음 적용한 데 이어 지난해 노트북과 태블릿PC에도 탠덤 OLED를 탑재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거론되는 LTPO OLED 분야 특허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LTPO는 LTPS(저온다결정실리콘) 트랜지스터 일부를 옥사이드(산화물)로 바꾼 하이브리드 구조로 전력소비량을 이전 대비 10~15% 줄인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LTPO OLED 패널을 탑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5대 특허청(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일본)에 출원된 전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LG디스플레이는 LTPO OLED 분야에서 649건의 특허를 내 24.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디스플레이 376건(14.4%) 중국 BOE 373건(14.3%) 등이 뒤를 이었다.

LG디스플레이는 핵심기술 특허를 확보하면서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해서 특허를 출원하면서 탄탄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것이 LG디스플레이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특허등록 수와 피인용 수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양적·질적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LG디스플레이에서 OLED 비중은 약 67%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2분기부터 LCD TV 사업철수 효과가 반영되고 OLED 사업기반의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

**특허량·점유율·피인용 수 1위
양적·질적 우수성 전세계 입증
증권가 “2분기 체질개선” 기대**

LG화학 콜롬비아 판매법인 설립...남미시장 확대로 위기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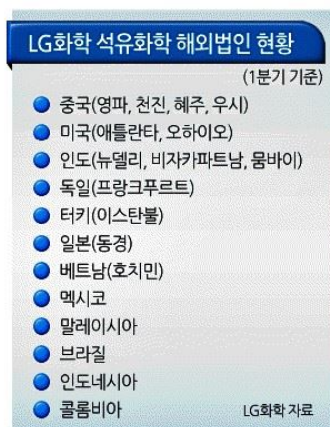
“남미로 시장 다변화하는 취지”

고부가 아닌 기초제품으로 승부

석화 업계, 고강도 사업재편 한창

LG화학이 올 초 콜롬비아에 석유화학 해외법인을 신규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남미 석화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닌 기초 석화 제품 저변 확대를 위한 판매법인이라는 점에서 LG화학이 근원적 경쟁력과 해외 채널 다변화로 석화 침체 극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 이어 두번째 남미법인…“석화수요 높은 지역”**=30일 LG화학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LG화학은 1분기 콜롬비아 현지에 판매 법인을 신설했다. LG화학은 이곳에서 기초 석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남미로 시장을 다변



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의 남미 지역 판매 법인은 기존 브라질 법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밖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생산 시설을 겸한 중국 소재 판매 법인이 5곳으로 가장 많고 이밖에 미국, 멕시코 각 1곳 등 총 24곳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은 중국 4곳, 인도 3곳 등

총 18곳이다.

이번 법인 설립은 LG화학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남미 신흥국들 위주로 석화 제품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다. 국내 석화 4사(LG화학·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한화솔루션) 가운데 남미 법인을 운영하는 곳은 이밖에 롯데케미칼(멕시코 첨단소재 생산기지)이 유일하다.

▶**에틸렌 올 신규증설만 930만t…공급과잉 지속**=석화 업계 불황이 길어지면서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고강도 사업 재편이 한창이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신성장 사업에 집중하는 방식이 대다수다. 중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증설이 계속되며 전통적인 석유화학 제품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짙어지면서다.

미국 금융정보업체 S&P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에틸렌 신규 증설

량은 약 936만5000톤이다. 지난해 에틸렌 증설량 234만2000톤에서 4배가량 뛰는 셈이다.

LG화학은 최근 안정적으로 2000억원대 연매출을 내온 워터솔루션 부문 매각에 착수했다. LG화학은 2023년 청주공장을 증설하며 사업을 2배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본업인 석유화학 침체가 길어지며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성장 사업으로는 양극재를 꼽고, 미국 테네시주에 2조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다. 내년부터 연간 6만톤 규모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LG화학과 비슷하게 기초 석화 제품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도 고강도 구조조정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을 청산했다. 올해는 일본 소재기업 레조낙 지분 4.9%를 2750억원에, 파키스탄 법인 지분을 978억원에 매각했다.

박혜원 기자

LG엔솔, 미국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 ... 중국산에 반격

〈에너지저장장치〉

〈리튬인산철〉



미래 배터리 시장 재편

미시간 공장서 1년 당겨 생산 시작
2차전지 업계 중 최초로 현지 양산
관세 영향 없어 가격 경쟁력 확보
데이터센터 등 수요 선점 기대감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 글로벌 2차전지 업계 최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LG엔솔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CATL·BYD는 물론 일본 파나소닉과 국내 3사(LG엔솔·삼성SDI·SK온)를 비롯한 주요 배터리 업체 중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가동한 곳은 LG엔솔이 유일하다. 이미 델타·테라젠 같은 현지 주요 에너지 업체에 제품 공급을 확정했다.

LG엔솔 관계자는 “ESS용 LFP 배터리를 현지에서 양산하면 관세 영향을 받지 않아 경쟁사 대비 우수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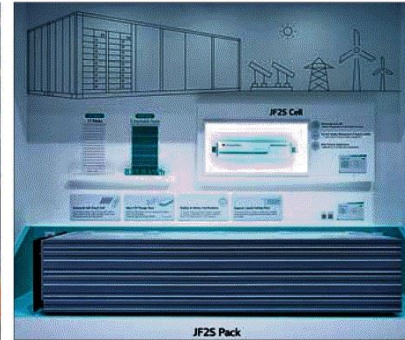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불확실한 정책 상황에서 북미 ESS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등 산업에서 급증하는 ESS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 열쇳말은 ESS와 LFP 모두다. 전기차 시장이 정체한 상황에서 북미 ESS 시장은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 기존 재생에너지 전력 관리에 더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85기가와트시(GWh)에서 2035년 약 1232GWh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은 CATL·BYD 등 중국 업체가 80% 이상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서 한 직원이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LG엔솔은 이곳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가동한 곳은 LG엔솔이 유일하다. 작은 사진은 이 회사가 개발한 롤-셀 배터리의 모습. [사진 LG에너지솔루션]

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 정책으로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 미국 내 군 시설에서 중국산 배터리 도입을 금지하는 등 향후 중국 업체의 시장 진입을 추가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LG엔솔이 ESS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는 의미가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LG엔솔은 이번 공장 증설로 미국 ESS

용 LFP 배터리 전체 수요의 25%를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3사는 그동안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집중해왔다. NCM이 LFP 배터리보다 20~30% 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밀도를 개선한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가 시장을 치고 들어오며 상황이 달라졌다. 고정된 위치에서 안정적 출력을 내는 게 중요한 ESS에 LFP 배터리가 적합하다는 점도 LG엔솔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LG엔솔은 당초 미국 애리조나주에 ESS용 LFP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해 2026년부터 양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변경해 신규 공장 건설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 미시간 홀랜드 공장부터 일부 공간을 ESS 생산라인으로 신속하게 바꾼 것이다.

현재 국내 업계는 ESS뿐 아니라 전기차용 LFP 배터리 개발에도 한창이다. LG엔솔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 삼성SDI·SK온은 이르면 내년부터 LFP 배터리를 양산할 예정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AI기술 공유에 격려 댓글... 소통왕 CEO로 뚝뚝 뭉친 LGU⁺

취임 6개월을 맞은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사진)가 사내용 대화 플랫폼을 열고 직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주 전 '트리고'라는 임직원 전용 관계망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활용에 들어갔다. 하버드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페이스북처럼 유플러스 판 SNS 형식으로, 홍 대표의 아이디어로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고는 계기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트리거(trigger)'와 실행한다는 의미를 담은 '고(go)'의 합성어다. 지난 3월 홍 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당시 홍 대표는 "회사나 개인이 성장하려면 동기, 역량, 계기 세 가지가 중요한데 구성원들이 성공을 향한 열망과 실현할 역량을 이

취임 반년 맞은 홍범식 대표
사내용 SNS 플랫폼 개설 제안
'트리고' 열고 임직원 소통 강화
홍 대표, 매일 출석하며 글 올려
"검색기술 설명 감사" 칭찬까지
IT지식 공유·토론의 장 펼쳐져



미 갖추고 있으므로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트리거를 만드는 것이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성원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회사 잠재력 폭발을 노린 것이 바로 트리고 플랫폼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트리고에는 구성원들이 직장 생활 중에 떠오른 생각이나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최신 정보 기술(IT) 지식, 동료 직원 칭찬이나 감동 사연 등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다. 학술 지식에는 사내 내로라하는 IT·통신 기술 전문 직원들의 격렬한 토론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교육 담당자는 트리고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활용 빈도, 활용 분야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적도 있고, 그 결과는 인공지능 전환(AI)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됐다. 홍 대표도 하루에 한 번

꼴로 인상 깊게 읽은 글이나 자기 생각을 올리고, 임직원 게시글에 댓글도 단다. 요즘 IT 업계의 화두인 인공지능(AI)에 이천트에 대해 개발자가 AI 검색 기술을 쉽게 정리한 내용을 공유한 것에 대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그리고 핵심 위주로 설명해줘서 감사하다"는 홍 대표의 댓글이 달렸다.

최근엔 홍 대표가 고객을 감동하게 한 한 구성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칭찬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홍 대표가 직접 칭찬한 직원들을 시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소통 경영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교육 담당자가 트리고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활용 빈도, 활용 분야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적도 있고, 그 결과는 인공

지능 전환(AI)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됐다.

소통 강화 외에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 재편이나 품질·안전·보안 등 기본기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전했다. 실제로 스포키, 포동, 베타, 화물잇고 등 수익성 낮은 사업을 정리했고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4.8% 오른 3조7481억원, 영업이익은 15.6% 증가한 2554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달성했던 영업이익의 1조 클럽 재가입의 청신호로 읽는 전망도 있다. 다만 AI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이 숙제다.

yi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LG유플·KT·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범죄 AI 분석 데이터 제공

LG유플러스가 은행연합회, KT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LGU+는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KT, 은행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 공동 홍보 체계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상호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피해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연합

회는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 고도화에 활용될 은행권 데이터를 제공하고, LGU+와 KT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의 인공지능(AI) 분석 정보를 제공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재원 LGU+ 부사장은 “AI 서비스 익시오의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통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번 협약은 양 업권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예방 인프라 공동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택배 도난까지 방지”...LGU+,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출시

로그인·보안칩 탑재 등 ‘3중 보안’

월 1만2100원 보상 보험 제공

“업계 최고 수준 개인정보보호”

LG유플러스는 현관문 앞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택배·배달 음식 도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관문 폐쇄회로TV(CCTV) 서비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은 실시간 영상보기부터 자동 녹화까지 해주는 현관 CCTV 상품이다. 현관문 앞에서 발생하는 수상한 움직임이나 아이 귀가, 택배 도착 등을 감지해 알려준다. 3중 보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제품 설치도 간편하다. 현관문에 별도 타공 없이 부착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은 움직임 감지 시 1초 내로 자동 녹화를 시작하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알림을 전송한다. 야간에도 적외선(IR) 모드로 선명한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외부 방문자와 양방향으로 대화하거나 음성 안내를 송출



LG유플러스 임직원 모델이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할 수도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탈취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CCTV 보안 성능을 강화했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은 2단계 로그인(아이디, 휴대폰 인증)을 통해 타인의 무단 접속을 차단한다. 이용자가 모르는 기기의 로그인 시에는 이를 앱에서 확인하고, 강제 로그아웃할 수 있다. CCTV 영상은 LG유플러스의 보안 클라우드에 암호화 형태로

저장된다.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 전용 칩(PUF)을 통해 해킹 위험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서비스는 월 1만2100원(3년 약정 기준, 모바일·인터넷 결합 시)에 이용할 수 있다. >도어캠 1대 >20GB 클라우드 영상 저장 >택배·화재·도난 보상 보험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화재·택배·도난 사고 시에는 KB손해보험과 제휴한 보상보

험을 통해 연간 최대 5000만원(화재), 최대 1000만원(시설 내 도난), 최대 50만원(택배 도난·연 2회 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우리집지킴이의 집안 내 홈캠과 함께 가입 시 추가적인 할인 및 프로모션 혜택 등도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출시를 통해 실외 보안 영역까지 홈보안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경 LG유플러스 홈Agent트라이브 상무는 “혼자 사는 여성,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시니어 가구 등 보안이 절실한 고객층을 위한 실외의 통합 보안 솔루션을 구성했다”며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해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문 앞 범죄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주거지역 범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절도 범죄 중 절반 이상이 출입문 또는 공동현관 앞에서 발생했다. 특히 택배·배달 도난은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우 기자

“‘주주포차’ 지역방송으로 지역민·정치 징검다리 역할 하고 싶어”

박건상 LG헬로비전 강원보도국장 인터뷰

“정치는 생각보다 멀리 있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만나보면 골목 어귀서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 처럼 친근하기도 하고요.”

지역민과 정치를 이어주는 방송이 있다. LG헬로비전의 ‘주주포차’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포장마차’라는 의미의 주주포차는 단순 예능이 아니다. 정치가 멀고 어렵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술 한잔 기울이며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한 지역 지자체장의 진솔한 의견뿐 아니라 노래 한 곡도 들어볼 수 있다. 지역 케이블TV를 통해 대선이나 총선거간 반짝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과 밀접한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멀다고 생각하는 정치의 간극을 좁히면서 화제가 됐다.

베테랑 방송인이자 주주포차 기획에도 깊이 관련한 박건상(사진) LG헬로

비전 강원보도국장은 1일 디지털타임스 인터뷰에서 “20년 넘게 케이블TV에 있었는데 직업이 ‘동네 방송기자’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며 “지역민과 호흡하면서 지역 특화 현안과 사람을 다루는 게 지역방송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주포차는 LG헬로비전 영서방송 권역인 강원도 원주에 오픈 스튜디오가 마련된 이후 탄생했다. 그는

“작가, PD분들과 얘기를 하다 최소한의 제작비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했다”며 “충청남도에서 있을 때 방송했던 포장마차 콘셉트를 그대로 스튜디오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시청자와 가까



운 소재로 다가가려는 의도는 주효했다. 정치인을 딱딱한 이미지로 보는 선도 깨고 싶었다. 박 국장은 “직접 만나고 보면 정치인들도 동네 어르신이라”며 “너무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함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술 한잔 들어가면 가무를 즐기는 한 국사람 특성답게 주주포차에서는 출연진들이 노래 한 곡씩을 뽑기도 한다.

시즌1 때 우연히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 시즌2에서는 노래방 기계도 마련했다. 단순히 유쾌한 콘텐츠에 그치지 않는다.

주주포차에 출연한 한 시의원은 방송에서 자신의 공약을 못 지키면 ‘춤을 추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행

했던 지적장애인 부모를 위한 ‘홈케어’ 정책을 원주로 들여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모범시민, 봉사자, 창의적 도전을 하는 주민까지 출연진 범위를 넓혔다. LG헬로비전은 주주포차 유튜브 콘텐츠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원주 스튜디오뿐 아니라 경남 김해와 전남 목포 오픈 스튜디오도 활용한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지역 케이블TV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다. 특히 지난 경북 산불 사태 때 지역 방송의 역할이 제 역할을 했다.

박 국장은 “산불이 났을 때도 지역 케이블TV는 ‘어디 골목, 어떤 마을’까지도 말할 수 있는 실시간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다”며 “행정을 어렵게 여기지 않도록 동네 주민과 정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

'SK·현대차·LG大' 세워 AI 석·박사 키운다

LG그룹은 AI 시대를 견인할 'LG대 AI 석·박사' 배출을 목표로, 현재 교수(전임 교원) 선발·채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 정수를 마감한 LG AI대학원의 인공지능학과 교수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에는 국내 내로라하는 AI 전문가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설립한 사내 비인가 AI대학원을 교육부 인가를 취득한 정식 대학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다. 전환 목표시점은 오는 9월이다. 정식 인가 시 기업이 석·박사 학위를 주는 세계 첫 사례가 된다.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분야 '토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석·박사 학위를 주는 사내대학원 설립에 나서서 한때 국내 대학 석·박사 출신을 대거 영입해 AI

토종 인재육성 뛰어든 기업들
9월 정식인가 앞둔 LG 대학원
교수 채용 돌입하며 본격 채비
"국내서 학생 키워 현장에 투입"
삼성은 조직 손질해 인력 확보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총수 등 최고경영진의 AI 인재경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AI 핵심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토종 인재 확보의 발판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1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9월 LG AI대학원의 정식 대학원 전환은 국내 사내대학원 설립의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업 사내대학원 설립의 근거법(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을 마련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

자는 "지난 2022년 LG의 비인가 대학원 설립 사례를 통해 기업 대학원 설립에 대한 정책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LG는 AI대학원을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첨단인재 확보를 위한 사내대학원 설립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 한편 관련 부처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I 및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직접 육성,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AI 관련 조직 재정비 및 인재 확보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리서치와 DS(디지털솔루션·반도체 사업) 부문에 각각 AI센터를 두고, AI 관련 임원을 대폭 확충했다. 삼성전자의 AI 담당 임원은 지난해 1~4분기 사외이사인 조혜경 한성대 AI 응용학과 교수

포함, 총 7명에서 1년 만인 올해 1~4분기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해외 대학 박사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국내 대학 석·박사도 대거 포진한 상태다.

AI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산업계 과제로 대두한 핵심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선 연봉 등 처우개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산업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이스트 AI대학원 신진우 석좌교수는 "해외 빅테크의 박사급 AI인재의 경우 통상 연봉이 40만~50만달러(약 5억5000만~7억원)인데 국내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1억원 남짓"이라며 "그럼에도 해외보다는 국내에 잔류하겠다는 AI인재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AI인재들이 제각각에 일할 수 있는 연구 및 투자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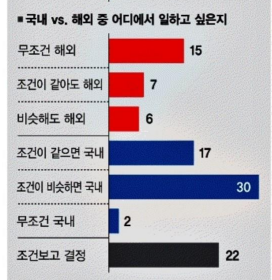
ehcho@fnnews.com 조은호 임수빈 기자

국내 주요그룹 AI 인재 확보 방안	
LG	국내 첫 사내 인가 AI 대학원 개설 AI 연구원 운영
삼성	삼성클로버리서치 AI 센터 삼성DS부문 AI센터 운영 삼성청년SW·AI아카데미 (SSAFY, 씨피)
SK	수펙스지원회 산하 AI추진단·DT 추진팀 신설
현대차	연세대에 AI혁신연구원 설립

삼성 'AI 임원' 3배 확대... 토종 인재 해외 유출 막는다



AI 인재 유출 현황 설문조사 (단위: %)
※ 조사: 2023년, 사 관련 박사과정 석사과정, 국내 대기업, 교수, 국내 스타트업, 해외기업, 국내외 정부연구기관 등 (응답자의 50%는 석·박사학위)
자료: 카이스트 AI대학원 신진우 석좌교수



최근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토종 인공지능(AI)인재 확보전'이 본격화된 모습이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AI 핵심인재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AI 산업기반이 조성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총수들이 직접 나선 '인재 모시기'
1일 재계에 따르면 '인재 모시기'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의 인재 육성 및 확보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LG의 AI대학원 인준은 구 광도 회장의 강력한 인재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룹 차원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이 인재라는 입장이다. 중국 AI '딥시크' 충격이 인재 확보의 자극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유학과 출신 중국 토종 AI인재들이 딥시크라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국내 토종 AI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삼성, SK와 현대차 등 다른 4대 그룹들도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韓 AI기술 보유자 순유출 세계4위
이탈 원인 1순위로 '연봉' 꼽아
4대그룹 국내 전문가 확보 사활

삼성 'SSAFY'에 AI 추가해 개편
LG·SK도 미래경쟁력 강화 팔걸어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에 지난해 AI센터를 신설하고 송용호 한양대 교수 센터장으로 영입하며 AI 기술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의 AI 담당 임원은 지난해 1~4분기 7명(사외이사인 조혜경 한성대 AI 응용학과 교수 포함)에서 1년 만인 올해 1~4분기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해외 대학 박사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국내 대학 석·박사도 대거 포진한 상태다.

최근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삼성 전자 이재용 회장이 함께 방문했던 삼성의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SSAFY 역시

기관명에 'AI'를 추가하며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넘어 AI 인재 육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삼성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SK 최태원 회장은 재계의 대표적인 AI 산업 육성론자다. 최 회장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AI 경쟁에서 이미 늦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산업을 육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K는 수펙스추진협의회,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네트웍스를 중심 축으로 AI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두뇌 유출' 해소 키워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구 1만명당 AI 기술 보유자의 순유출이 0.36명으로 이스라엘, 헝가리, 튀르키예에 이어 AI인재 유출이 네 번째로 많은 국가다. 상당수가 고액 연봉이 보장된 미국 빅테크기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대

학원을 졸업한 AI인재의 40%가 해외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산업 성장을 이끌어야 할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유출'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주요 그룹들은 총수 주도로 적극적으로 토종 인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AI인재 유출과 관련, 카이스트 AI대학원 신진우 석좌교수가 최근 직접 국내 AI 관련 석·박사, 기업인, 교수, 정부 출연기관 등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기업들이 해외에 비해 부족한 부분(복수응답)으로 연봉이 88%, 데이터·컴퓨팅 자원 60%, 성장가능성 58%, 동료의 수준 34%, 삶의 질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안정성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란 현실적 여건, 더불어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 확보 수준, 성장가능성, 동료의 수준 등 연구환경을 동시에 중시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ehcho@fnnews.com 조은호 임수빈 기자

실무형 리더들, AI경쟁 이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인공지능(AI)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고도화와 내부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그룹은 조직개편, 사내 교육체계 신설, 외부협력 확대 등을 이끄는 AI 리더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력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산업 전반에서 AI가 주도권 경쟁의 '게임 체인기'로 부상한 만큼 기업별 전략을 이끄는 핵심 인물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반도체(DS) 부문에 AI 센터를 신설, AI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신임 센터장으로는 송용호 전 메모리사업부 솔루션개발실장(부사장)이 선임돼 DS AI 역량 강화의 키를 쥐고 있다. 송 센터장은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2019년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이후 메모리 전략마케팅 팀 담당 임원, 솔루션개발실 담당 임원 등을 역임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AI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수년 전부터 강화해왔는데, 송 센터장이 이끄는 AI 센터는 단순 연구가 아닌 공정·설계·시험·불량 예측 등 생산 전반에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미션이다.

LG가 추진 중인 'AI 대학원' 인가의 핵심 책임자인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AI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LG그룹의 AI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배 원장이 이끄는 LG AI연구원은 LG가 디지털전환(DX) 전략을 추진하며 지난 2020년 12



월 설립한 AI 연구기관이다. 박준 SK텔레콤 AI인텔리전스사업본부장은 SK그룹의 AI 기술 및 인재 전략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soup@fnnews.com 임수빈 조은호 기자